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202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목 차 】

I. 출장개요	3
II. 사전준비활동	7
III. 출장국가 개요	8
IV. 기관방문지 주요내용	10
1. St Anthony' s Family Care(장애아동 복지시설)	
2. Daybreak Senior Daycare(노인복지시설)	
3. 로토루아 시의회	
4. 캔버라 국회의사당	
V. 문화탐방 및 기타 방문지	19
VI. 의원별 정책제안	25

- 선진 복지 사례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 2024년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 배경

- 복지 선진도시 정책추진 방향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도시재생 성공사례 및 친환경 도심 공간조성 현황 시찰
- 지역맞춤형 관광자원 활용방안 우수사례 시찰
- 우수 문화예술시설 탐방을 통한 이천시 문화관광분야 발전방향 모색

□ 출장 개요

- 기 간 : 2024. 5. 15.(수) ~ 2023. 5. 23.(목) 【7박 9일】
- 출장국 : 호주, 뉴질랜드
- 출장자 : 14명(의원 9명, 직원 5명)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1	이천시의회	의 장	김 하 식
2		부 의 장	김 재 현
3		의 회 운 영 위 원 장	박 명 서
4		자 치 행 정 위 원 장	박 노 희
5		산 업 건 설 위 원 장	송 옥 란
6		시 의 원	김 재 국
7		시 의 원	서 학 원
8		시 의 원	박 준 하
9		시 의 원	임 진 모
10		의 회 사 무 과 장	이 보 철
11		의 정 팀 장	최 은 정
12		주 무 관	김 동 현
13		주 무 관	김 재 현
14		주 무 관	임 진 영

□ 출장 목적

- 호주, 뉴질랜드의 복지 분야 선진사례 체험 및 벤치마킹을 통한 이천시 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대규모 근린공원, 도시 재생 현장 시찰을 통해 지역상권과의 상생 발전현황 및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국제사회 속 경기도 이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교류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일정

일자	지역	출장내용	비고
제1일 5월15일 (수)	인천	· 인천 출발(시드니 향발) 18:55	
제2일 5월16일 (목)	시드니 카툼바 시드니	· 시드니 도착 06:55 ▶ 유네스코 자연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주 소 : New South Wales, Australia ■ 주요내용 ·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시찰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식 벤치마킹	호주
제3일 5월17일 (금)	시드니	▶ St Anthony's Family Care ■ 주 소 : 11 Monash Parade, Croydon NSW 2132, Australia ■ 홈페이지 : https://www.safc.org.au ■ 주요내용 · 호주의 장애아동 복지시설 운영 사례 벤치마킹 ▶ 하이드파크 ■ 주 소 : Elizabeth St, Sydney, New South Wales 2000 Australia ■ 주요내용 · 시드니 최대 규모의 공원 탐방 ▶ 세인트 메리 대성당 ■ 주 소 : St Marys Rd, Sydney NSW 2000, Australia ■ 주요내용 · 고딕 양식의 로마 가톨릭 대성당 문화 탐방	호주

제4일 5월18일 (토)	시드니 캔버라 시드니	▶ 국립박물관 ■ 주 소 : Lawson Cres, Acton ACT 2601, Australia ■ 홈페이지 : https://www.nma.gov.au/ ■ 주요내용 · 호주의 역사적인 유물과 예술품 시찰 · 문화재 보존·관리 벤치마킹	호주
		▶ 캔버라 국회의사당 ■ 주 소 : Parliament Dr, Canberra ACT 2600, Australia ■ 홈페이지 : https://www.aph.gov.au/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정책결정과정 및 주요정책 우수사례 비교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 주 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 주요내용 · 호주와 대한민국의 우호적 외교관계 방안 고찰	
		▶ National Capital Exhibition 시찰 ■ 주 소 : Barrine Dr, Parkes ACT 2600, Australia ■ 홈페이지 : https://www.nca.gov.au/attractions/national-capital-exhibition ■ 주요내용 · 호주 수도 캔버라 도시 계획과 진행 과정 시찰	
		▶ 호주 전쟁기념관 ■ 주 소 : Treloar Crescent Campbell ACT 2612, Australia ■ 홈페이지 : https://www.awm.gov.au/ ■ 주요내용 · 호주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고 참전희생자들을 추모 · 한반도 정세 및 국제평화를 위한 역할 등에 대해 숙고	
제5일 5월19일 (일)	시드니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오페라하우스 ■ 주 소 : GPO Box R239 Royal Exchange Sydney NSW 1225, Australia ■ 홈페이지 : https://www.sydneyoperahouse.com/ ■ 주요내용 · 도시 랜드마크 오페라하우스 시찰 · 이천아트홀 위상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 벤치마킹	호주
		▶ 더 록스 ■ 주 소 : St Marys Rd, Sydney NSW 2000, Australia ■ 주요내용 · 록스 마켓 활성화로 관광 명소가 된 록스 지역 벤치마킹	

		▶ 바랑가루(Barangaroo) 지역 현장 방문 ■ 주 소 : 5010 Munn Street Barangaroo NSW 2000, Australia ■ 주요내용 · 컨테이너터미널로 방치된 지역을 개발한 도시재생프로젝트 현장 시찰	
		▶ 로열 보타닉 가든 ■ 주 소 :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 주요내용 · 도심속 식물원 및 공원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제6일 5월20일 (월)	시드니 로토루아	· 호텔 출발 · 뉴질랜드로 이동(약 4시간 이동) · 로토루아로 이동(약 3시간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호주 뉴질랜드
제7일 5월21일 (화)	로토루아	▶ 아그로돔 농장 ■ 주소 : 141 Western Road, Ngongotahā, Rotorua 3010, Newzealand ■ 주요내용 ·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농장테마파크 시찰 ·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 농·축산업 발전 방향 벤치마킹 ▶ Daybreak Senior Daycare ■ 주소 : 69 Lake Road, Ohinemutu, Rotorua 3010, Newzealand ■ 홈페이지 : https://www.eldernet.co.nz/ ■ 주요내용 ·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 시설 ▶ 로토루아 시의회 ■ 주 소 : 1061 Haupapa Street, Rotorua 3010, Newzealand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정책결정과정 및 주요정책 우수사례 비교 · 의회 운영 및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벤치마킹	뉴질랜드
제8일 5월22일 (수)	로토루아 와이토모 오클랜드	▶ 와이토모 석회암 동굴 관람 ■ 주 소 : 39 Waitomo Village Road, Newzealand ■ 주요내용 · 반딧불이의 서식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와이토모 동굴 관람 · 이천시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개발·활용 방안 벤치마킹 ▶ 오클랜드 명소 탐방(하버브릿지, 미션베이 등)	뉴질랜드
제9일 5월23일 (목)	오클랜드 인천	· 공항으로 이동 · 오클랜드 출발 11:40(약 11시간 20분 소요) · 인천 도착 20:20	

II

사전 준비 활동



□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

○ 의회 주례회의

- 일 시 : 2024. 2. 5.(월) 09:00 ~
-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 참석자 : 14명(의원 9명, 공무원 5명)
- 안 건 : 2024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국가 및 출장시기 선정
- 주요 내용
 - 선진 복지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국가 선정에 대해 논의.
 - 지난 2015년~2023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 목적에 맞는 출장 국가를 선정함.
 - 복지 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 선정 및 출장 기간은 비회기 기간인 5월 초·중순 확정함.



주례회의(24. 2. 5.)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4. 4. 16.(화) 16:00 ~
-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7인 중 4인 참석(민간위원)
- 안 건 : 2024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관련근거

-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 호주

【일반현황】

- 국명 :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Australia))
- 수도 : 캔버라(Canberra)
- 인구 : 2,669만명(2024. 기준)
- 면적 : 769만km²(한반도의 35배, 세계 6위)
- 종교 : 기독교 44%, 무교 39%, 기타 17%
(불교, 이슬람교 등)
- 언어 : 영어
- 민족 : 앵글로색슨 80%, 아시안, 원주민 및 기타 약 20%
- GDP : 1조 6,754억\$(2022년)



○ 정치형태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 영국 국왕이 국가원수이며, 총독이 대리
- 주요인사
 - 총독 : David Hurley (19.7월)
 - 총리 : Anthony Norman Albanese (22.5월)
 - 상원의장 : Sue Lines (22.7월)
 - 하원의장 : Milton Dick (22.6월)

○ 의회형태

- 의회구성 : 양원제(상원76석, 하원151석)
- 주요내용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리의 요청을 받은 연방총독에 의해 해산될 수 있음.
 -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동일한 형태로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되며, 하원만이 제안할 수 있는 세출 및 조세 관련 재정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든 먼저 제안 가능함.
 - 연방의회의 입법 범위는 국제무역, 주정부간 무역, 외교, 국방, 이민, 납세, 금융, 보험, 결혼 및 이혼, 통화 및 도량형, 우편 및 통신, 노령연금 등이며 도로, 병원, 학교, 지방행정 등에 관한 입법권한은 각 주정부가 보유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1.10.30. 외교관계 수립
- 교민현황
 - 재외동포 수: 158,103명(2021년)

□ 뉴질랜드

【일반현황】

- 국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수도 : 웰링턴(Wellington)
- 인구 : 526만명(2024. 기준)
- 면적 : 27만km² (한반도의 1.2배)
- 언어 : 영어, 마오리어
- 종교 : 개신교(35%), 가톨릭(13%)
- 민족 : 유럽계 74%, 마오리계 15%, 아시아계 12%,
남태평양계 7%
- GDP : 2,472억\$ (2022)



○ 정치형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영국 국왕이 국가원수이며, 총독이 대리
- 주요인사 ※ 2023.11.27.(월) 신정부 출범
 - 총독 : Cindy Kiro (女)
 - 총리 : Christopher Luxon (男)
 - 국회의장 : Gerry Brownlee (男)

○ 의회형태

- 의회구성 : 총 123석 ※2023.10.14.총선
- 단원제, 임기 3년
- 주요내용
 - 타 영연방 국가들처럼 웨스트민스터식 체제로 다른 웨스트민스터식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 했다는 차이점이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2.03.26. 외교관계 수립
- 교민현황
 - 재외동포 수 : 31,810명(2023년)
 - 한국 내 뉴질랜드인 : 약 5,700명('23.12월)



기관방문 St Anthony's Family Care(장애아동복지시설)

- 방 문 일 : 2024. 5. 17.(금) 10:00
- 방문위치 : 11 Monash Parade, Croydon NSW 2132, Australia
- 방문목적
 - 호주의 아동 복지서비스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천시 복지 정책에 적용 여부 검토
- 내 용
 - 1923년 성 안토니오의 집을 처음 설립한 이래 장애 아동 및 25세 이하의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서비스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유치원 및 임시 보호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의 종일 보육 서비스, 긴급 차량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 2019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대적인 부지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에 St Anthony's Family Care Village가 개장되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및 장애 아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 기관 목표: 스스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하는 것

■ 주요 질의 및 답변

Q.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A.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장애 아동을 분리시키지 않고 일반 아동들과 다 같이 배우게 하고 일반 아동 사이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Q. 호주는 일반 학교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야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 다니는 친구들도 야외 활동을 하나요?

A. 저희 시설에 야외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충분히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처럼 버스를 운행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나요? 아니면 직접 엄마들이 태워다주나요?

A.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부모님이 항상 데려다 줍니다.

Q. 이곳의 소속은 국가와 시·도 중 어디인가요?

설명자료를 보니 예산에 국가 보조금만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서요.

A. 주정부 소속입니다. 주정부에 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Q. 장애아동 바우처가 있나요?

A. NDIS라는 장애 보험 시스템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국가가 보험을 통해서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치료비가 100% 무료입니다.

Q. 이용료를 매일 지불하나요?

A. 일주일에 두 번씩 청구서를 보내요.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합니다.

Q. 그럼 그 학생들이 계속 시설을 이용하나요?

A. 한번 등록하면 보통 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용합니다.

Q. 이 시설에 자폐 아동이 많다고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아들도 있나요?

A.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가 심한 아동들이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스텝이 있어요. 16세부터 25세까지 장애가 심한 친구들은 1:1로 특수장애선생님이 케어를 해주십니다.

Q. 자폐 아이들이 0세~2세 때 조기 발견을 하면 완쾌가 가능하다는 말이 맞나요?

A.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완치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빨리 발견이 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Q. 장애가 심한 아동의 경우에 24시간 돌봄은 없나요?

A. 9시부터 5시까지는 정상적인 케어를 받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3일까지는 밤에도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심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24시간 돌보미가 2명씩 집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Q. 16세에서 25세면 호주에서는 거의 성인인데 이 아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A. 저희 시설은 대상자의 나이가 25세까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지원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25세면 독립을 해서 자기들끼리 있는 공간에 가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또 다른 동료들과 생활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Q. 호주는 장애가 심한 경우 25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나요?

A. 장애가 있지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25세까지는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부모가 집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 가서 생활을 할지 선택합니다. 장애아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NDIS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Q. 여기서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성인이 됐을 때 진로나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하나요?

A. 저희 기관은 중증 장애인이 많아서 직업훈련은 불가능합니다.

Q. 설명 중, 10%의 수익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A. 골드만삭스 그룹의 JP모간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서 10%의 수익이 납니다. 기부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골드만삭스에 맡기는 거예요. 저희 자체 운영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 사진자료



- 방 문 일 : 2024. 5. 21.(화) 11:00
- 방문위치 : 69 Lake Road, Ohinemutu, Rotorua 3010, Newzealand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복지서비스 실시체계 및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천시 복지 정책에 적용 여부 검토
- 내 용
 - 로토루아 지역 내 유일한 노인복지시설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식과 취미활동 등을 돕기 위해 정부 보조로 설립된 주간보호시설이다.
 - 개인별로 전임닥터가 있으며 의사소견서를 받아야만 입소 가능하고 매일 전용차량으로 이용자를 픽업하여 시간 계획표대로 일과가 운영되고 있다.

■ 주요 질의 및 답변

Q.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A. 일정 시작은 오전 8시 45분이며 시설 차량으로 입소자들을 시설로 모셔 온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입소자들 중 절반 정도가 저녁을 거르시는 독거노인이셔서 바로 아침차를 드린 후 30분 정도 스트레칭 운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다음에는 단어 낱말 맞추기 게임 등 인지능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임 위주로 대략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점심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한 30분 정도의 자유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자유 시간이 끝난 뒤에는 1시간 정도를 야외에서 엔터테이너- 노래 부르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연설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머핀이나, 스콘 등을 준비해드리며 오후 다과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후 한 2시 45분이나 3시가 되면 다시 집에 모셔다드립니다. 하루 중 약 10시부터 3시까지를 여기 시설에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식사는 제공되나요? 식단에 특별히 신경쓰는 점은 무엇인가요?

- A. 점심시간에 음식은 밖에서 가지고 오는지 아님 여기서 직접 만드느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리사 한 분이 여기서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뉴는 기본적으로 고기 메뉴 하나, 야채 메뉴 3개, 디저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을 많이 해서 따뜻하게 배를 채우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Q.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뉴질랜드는 각 개인마다 GP라고 부르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해당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로 가야하겠다고 판단하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큰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보냅니다. 의사가 시설 이용 일수를 정해서 저희에게 추천서를 주면 저희가 어르신을 방문하는데, 방문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치매 증상이 어떤가요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초기 치매 증상인 분들만 받고 있습니다.

Q. 이용자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저희 주간보호센터의 총 정원은 50명입니다. 보통 하루에 오시는 분은 평균 40명에서 45명 정도입니다.

Q. 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분들도 있나요?

A.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4주 정도 소요됩니다.

Q. 65세 이상 분들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니며, 입소를 결정하는 주치의 의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세가 가장 어리신 분은 58세이시고,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100세이십니다.

Q. 이런 주간보호센터가 로토루아에 더 있습니까?

A. 요양원은 몇군데 있지만 여기가 유일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역에 주간 활동 센터라고 있는데 그곳은 어르신들에게 일주일 동안 액티비티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Q. 이용자들의 자부담이 있나요?

A. 자부담은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Q.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나요?

A.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사립입니다.

Q. 어르신이 50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몇 분이 케어를 하시죠?

A. 저희 총 직원은 10명 정도인데 매일 출근하는 직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선생님의 비율은 대략 7 대 1, 8 대 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Q. 거동이 다 괜찮으신 분들이 오는 건가요?

A.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 혼자서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Q. 혹시 여기 직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A. 뉴질랜드 학과 중에 레벨 3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 자격증이 필요하고 응급조치 자격증도 꼭 필요합니다.

Q. 시설이 생긴지 얼마나 됐나요?

A. 운영된 지는 총 25년 됐고 지금 센터장님이 3년 전에 새로 인수를 했습니다.

Q. 입소 기준이 주치의잖아요. 혹시 소득 기준이나 지금 대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순위에 어떤 참고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A.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고 주치의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입소여부를 판단합니다.

Q. 시설 이용일 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독거 노인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 다 나오십니다. 그 외에 집에서 누군가가 돌볼 사람이 있는 분들은 가족과 상의를 해서 이용일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는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요양사들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A.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중증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로토루아에는 또 다른 자원봉사 기구가 있는데 어르신들 집에 가서 청소, 잔디깎기, 차로 1시간 동네 투어, 쇼핑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하나 있습니다.

Q. 뉴질랜드에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많나요?

A.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풀타임 케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Q. 복지 제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나요?

A. 로토루아에는 아직도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Q. 시설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사실 이러한 주간보호센터는 비즈니스로서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여기 센터장님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를 한 10년 정도 하신 분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이제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서 입소를 하게 되는데 주치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나 의사가 없으면 입소하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A. 맞습니다. 입소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입소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사진자료



- 방 문 일 : 2024. 5. 21.(화)
- 방문위치 : 1061 Haupapa Street, Rotorua 3010, Newzealand
- 방문목적 : 로토루아시 관광산업 발전 현황 시찰 및 시의회 의원 구성 비교
- 내 용
 - 로토루아는 호수, 온천, 유황의 도시이며, 마오리족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인 곳이다.
 - 로토루아시는 뉴질랜드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마오리족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여 북섬 최대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였으며 온천, 농장 등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 로토루아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으로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기관을 관장하며, 별도의 자치단체장이 존재하지 않고 의회의 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행정의 안정성 확보 및 정책결정과 집행 간 유기적 관련성으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단일기관에 권력이 집중되어 행정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 사진자료



기관방문 캔버라 국회의사당

- 방 문 일 : 2024. 5. 18.(토)
- 방문위치 : Parliament Dr, Canberra ACT 2600, Australia
- 방문목적 : 운영 현황 시찰
- 내 용
 - 오스트레일리아 의회가 열리는 장소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랜드마크 중의 하나이다.
 - 1988년에 준공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5달러 지폐에 국회의사당 건물이 그려져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로서, 같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의사당에는 하원 의사당과 상원 의사당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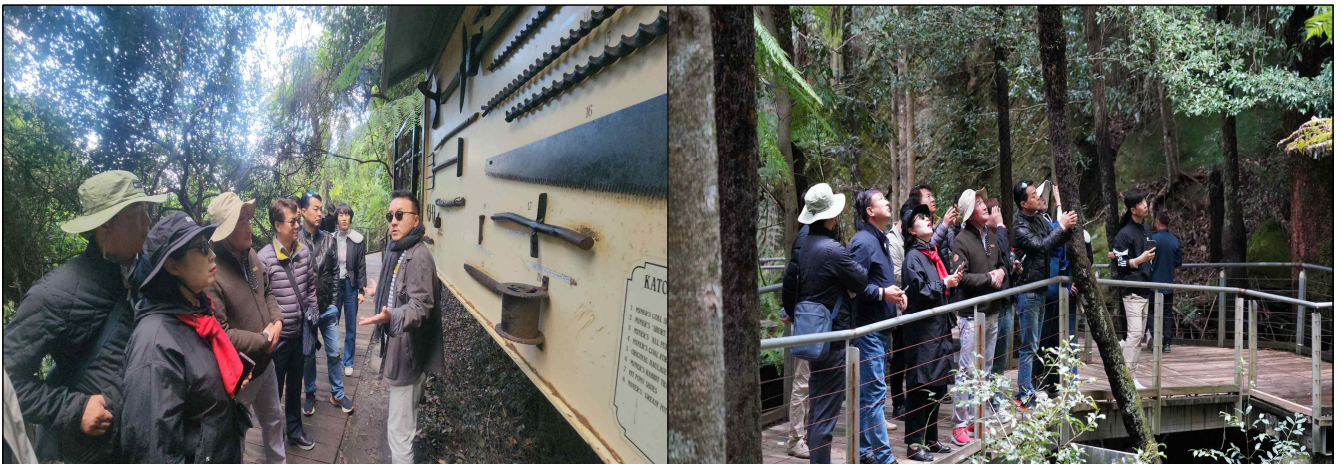
■ 사진자료



1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방 문 일 : 2024. 5. 16.(목)
- 방문위치 : New South Wales, Australia
- 방문목적 :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방식 벤치마킹
- 내 용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중동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195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전체 면적은 약 2,679.54km²이다. 시드니(Sydney)에서 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융기된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져 있다.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웨롱산(Mount Werong) 봉우리로 해발고도가 1,215m이다. 국립공원의 북쪽으로는 월랑갬브강(Wollangambe River)이 흐르며, 중앙에는 그로즈강(Grose River)이, 남쪽으로는 콕스강(Coxs River)과 월론딜리강(Wollondilly river)이 흐른다.
 - 2000년에 이곳 국립공원을 포함한 8곳의 보호 구역이 그레이터 블루마운틴 지역(Greater Blue Mountains Area)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유산(Australian Heritage Register) 목록에도 등재되었다.
 - 블루마운틴에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도보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서이다.

■ 사진자료



○ 방 문 일 : 2024. 5. 19.(일)

○ 방문위치 : 5010 Munn Street Barangaroo NSW 2000, Australia

○ 방문목적 :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벤치마킹

○ 내 용

- 바랑가루는 시드니 행정구역의 일부로 시드니 중심 업무 지역의 북서쪽 끝과 하버 브릿지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해양산업의 발달로 1820년 최초의 부두가 건설된 이후 유럽으로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였고 1960년대에는 화물항으로 번영을 누렸던 지역이다.
- 그러나 선박 크기 및 화물컨테이너 크기가 변경되고 하역량의 증가에 따른 화물철도의 연결 부족으로 화물 하역장으로서 역할을 잃게 되어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되었다.
- 주정부는 2003년 사무오락 및 주상복합 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재생 디자인 콘셉트를 공모해 2012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12년 바랑가루 지구 최초의 상업용 빌딩 신축을 시작으로 국제시드니타워 등이 인가되어 16년 최종 완공되었으며, 호주 5대 금융기관 및 상업시설 등이 입점하였다.
- 바랑가루 도시재생 지구는 시드니 역사 유적지의 대표적인 재발견의 성공사례이며, 2024년까지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기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 지구의 50% 이상을 공용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사진자료



3 세인트메리 대성당

- 방 문 일 : 2024. 5. 17.(금)
- 방문위치 : St Marys Rd, Sydney NSW 2000, Australia
- 방문목적 : 대표적 고딕 양식의 가톨릭 성당 문화탐방
- 내 용
 - 영국식 고딕 양식의 로마 가톨릭 성당으로 호주에 세워진 최초의 가톨릭 성당인 세인트메리 대성당은 하이드파크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모델로 하여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암을 자재로 건축하였는데 1865년 화재로 소실되어 2000년에 완공될 때까지 재건에만 130년 이상이 소요됐다.

■ 사진자료



4 호주 전쟁기념관

- 방 문 일 : 2024. 5. 18.(토)
- 방문위치 : Treloar Crescent Campbell ACT 2612, Australia
- 방문목적 : 호주 전쟁사를 살펴보고 참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천시 역할 등에 대해 숙고
- 내 용
 - 1941년에 전쟁에서 희생당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념공간, 갤러리, 연구센터 3구역으로 구성되며, 외부에는 조각공원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한 전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무기·사진·유품·군복·모형 등을 전시한다.
 -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건물 서쪽은 제1차 세계 대전, 동쪽은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갈리폴리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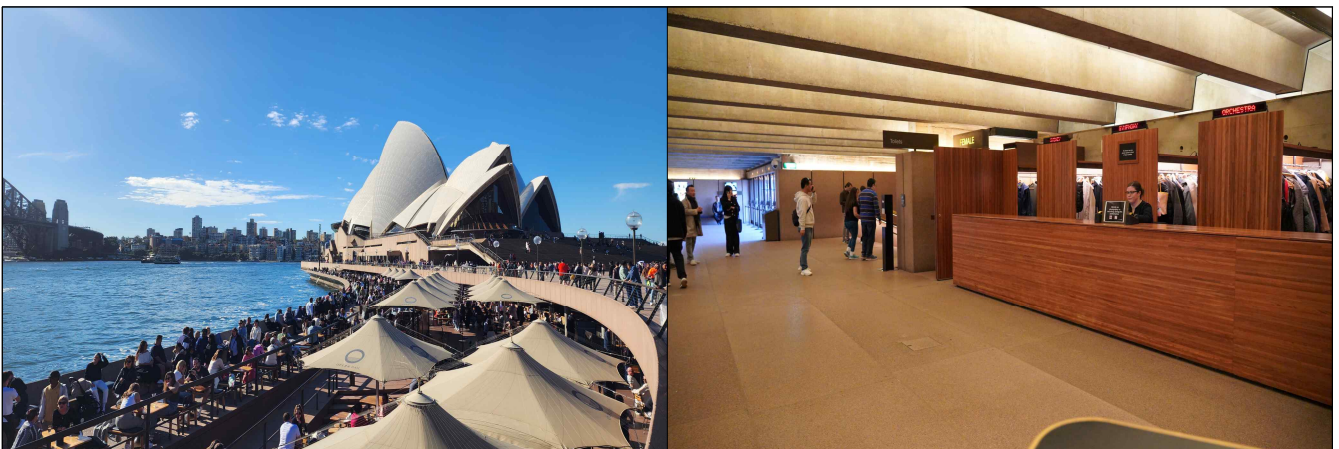
■ 사진자료



5 오페라하우스

- 방문 일 : 2024. 5. 19.(일)
- 방문위치 : GPO Box R239 Royal Exchange Sydney NSW 1225, Australia
- 방문목적 : 문화예술의 세계적 랜드마크인 우수 건축물 시찰을 통해 이천 아트홀 공간활용 및 운영방향에 대한 방안 모색
- 내 용
 - 2007년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페라하우스는 국제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손(Jørn Utzon)이 설계한 것으로 1973년 완공되었다.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돛모양을 되살린 조가비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지금은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 오페라하우스 내장재로 한번 찢낸 유칼립투스를 사용했는데 오랜 보존성을 위해서이다. 지붕은 빛의 반사를 막기 위해 백색과 황토빛을 혼합한 타일로 덮였으며, 건물 내 외벽의 유리는 밤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울여 놓았다.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 사진자료



6

뉴질랜드 농·축산업 선진 시설 - 아그로돔 농장

- 방 문 일 : 2024. 5. 21.(화)
- 방문위치 : 141 Western Road, Ngongotahā, Rotorua 3010, Newzealand
- 방문목적 :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화 현장 탐방
- 내 용
 - 뉴질랜드는 영토의 약 60%가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고 연중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하여 축산업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 아그로돔 농장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6차 산업화의 성공사례이다. 특히 헤드셋을 통해 나라별 통역을 지원하는 모습에서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을 위한 배려를 느꼈다.
 - 이천시 농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동물 사육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사진자료



7

와이토모 석회암 동굴

- 방 문 일 : 2024. 5. 22.(수)
- 방문위치 : 39 Waitomo Village Road, Newzealand
- 방문목적 : 이천시 자연환경을 관광명소로 개발·활용 방안 벤치마킹
- 내 용
 -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석회암 동굴로 형성된 지 3천만 년 이상되었으며, 1887년 마오리 부족장과 영국인 프레드 메이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 개뿔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이 서식하고 있으며, 글로우웜이 먹이활동을 하면서 빛을 내는데 어두운 동굴에서 보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장관을 이룬다.

-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과 석회암벽 등이 펼쳐져 있으며 동굴 아래 넷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동굴을 관람할 수 있다. 특이점은 동굴과 글로우웜의 보호를 위해 입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한 해 입장객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동굴 내부에서의 사진 촬영 등을 금지해서 자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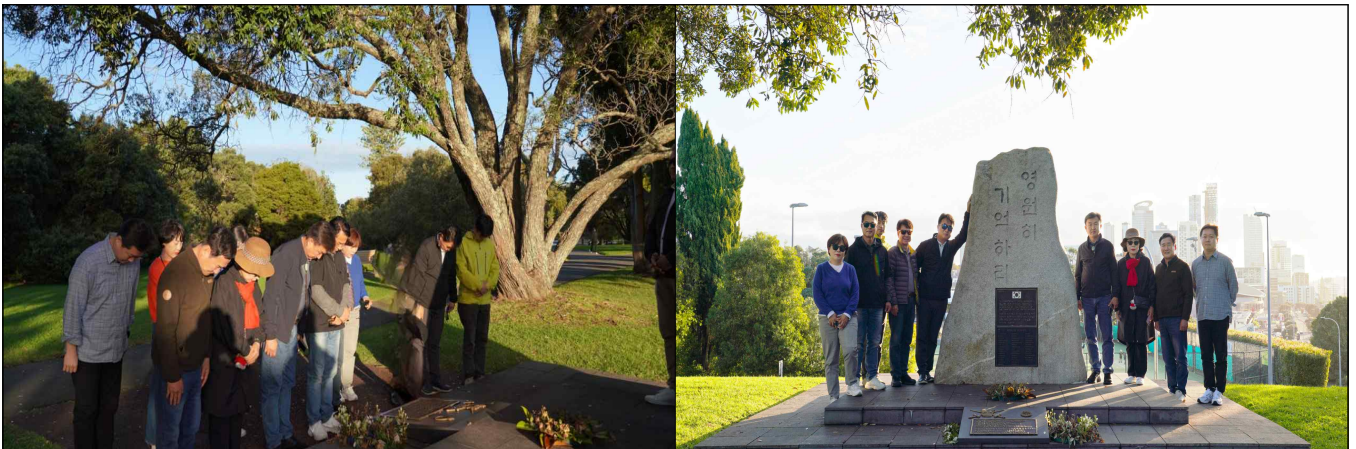
■ 사진자료



8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 방 문 일 : 2024. 5. 22.(수)
- 방문위치 : 85-87 Gladstone Road, Parnell, Auckland 1052, Newzealand
- 방문목적 :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
- 내 용
 - 도브 마이어 로빈슨 파크 내, 6.25 한국전쟁 뉴질랜드 참전 용사분들의 넋을 기리는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었다.
 - 뉴질랜드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총 5,144명 참전하였으며, 가평전투와 마량산 전투, 고왕산 전투 등을 치르면서 전사 23명, 부상 79명의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 그분들의 희생 정신에 감사와 숭고한 마음을 담아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 사진자료



VI 의원별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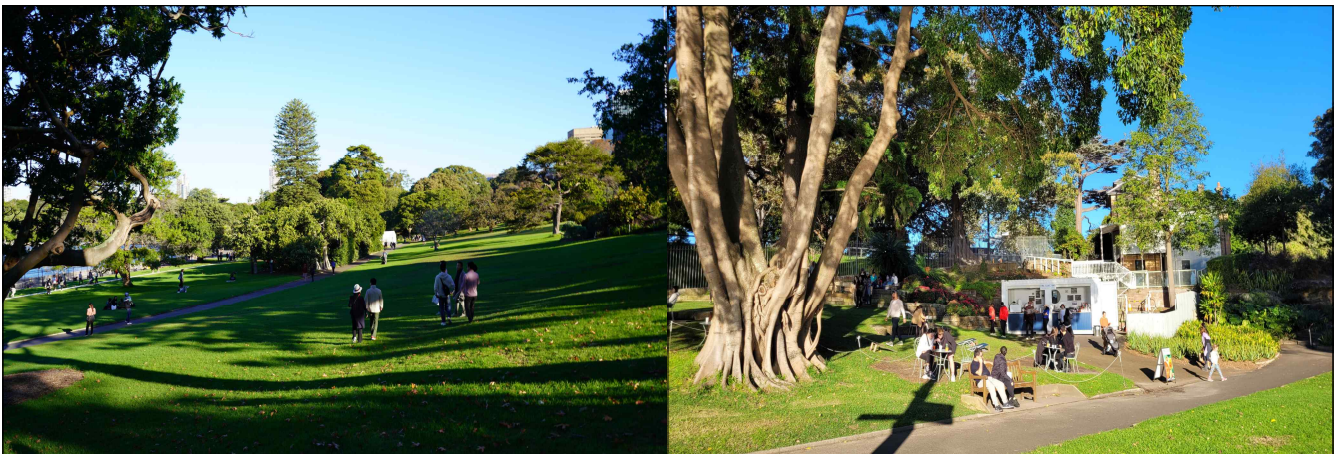
□ 정책제안 개요

주요 벤치마킹 대상	의원명	정책 제안 요지
로열 보타닉가든	김하식	- 도시공원 조성 정책 제안 - 시민의 문화체육 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공간활용 측면에서의 개방성·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함.
시드니시티	김재현	- 선진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헬멧 일체형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제안 - 헬멧 일체형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및 위험감지 주행 시스템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
더록스	박명서	- 이천 창전동 문화의거리, 설봉공원 등을 활용한 플리마켓 활성화 제안 - 플리마켓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및 소상공업 제품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아그로돔 농장	박노희	- 이천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6차 산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제안 - 농장 체험 관광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그로돔 농장 사례를 바탕으로 이천시만의 특색있는 동물 사육과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함.
Daybreak Senior Daycare (노인복지시설)	송옥란	-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및 사회복지정책 마련 - 증가하는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전생애적 복지시스템 마련 및 예방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St Anthony's Famaily Care (장애아동복지시설)	김재국	-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아동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통합교육 확대 및 돌봄시설 확충이 필요함.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련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와이토모 석회암 동굴	서학원	- 이천시 자연환경, 문화유산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 - 이천 도자기(고려청자), 신문 정개산 피난성, 서희선생의 외교담판 등 이천이 보유한 자랑스러운 고려의 역사를 관광콘텐츠화 해야 함.
St Anthony's Famaily Care (장애아동복지시설)	박준하	- 이천시 거버넌스 복지시스템 구축 필요 - 장애아동 대상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가정의 육아 부담 및 육아 공백을 최소화 -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바랑가루 도시재생지역	임진모	- 이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로컬 골목문화 조성 제안 - 창전동, 중리동 등 음식점 등이 모여있는 구도심 골목을 활용해 바랑가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천카페, 레스토랑처럼 로컬골목거리를 조성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의원별 정책제안 주요내용

○ 김하식 의장

- 현대 사회에서 도시 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이자 다양한 신체·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 공원시설을 시찰하면서 이천시 공원 조성 정책에 참고할만한 우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다.
- 호주 시드니에는 하이드파크, 로열 보타닉가든 등 도심 속에 녹지환경이 잘 조화된 도시공원이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넓은 잔디광장을 중심에 두고 편의시설을 외곽 쪽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잔디광장에서 운동이나 독서, 피크닉 등을 즐기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호주 로열 보타닉가든

-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원을 조성할 때 벤치나 정자, 조형물, 나무식재 등의 구조물을 빼곡하게 설치하는데 이렇게 조성된 공원은 고정 구조물로 인하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뒤따른다.
- 따라서 각종 시설로 공원을 채우는 것보다는 잔디광장을 넓게 조성하고 공원 경계선을 따라 나무식재, 벤치,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한다면 때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 이천시 남천공원(중리 제2어린이공원)의 경우에도 중심부에 잔디광장을 넓게 조성하고 외곽쪽에 어린이놀이터 및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 또한 이천시는 지역 대표명소인 설봉공원의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지난 5월 완료했다. 기존 차로를 없애고 잔디밭 광장과 산책로를 넓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설봉공원을 쉼과 휴식의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천시민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이천시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천시 남천공원(중리 제2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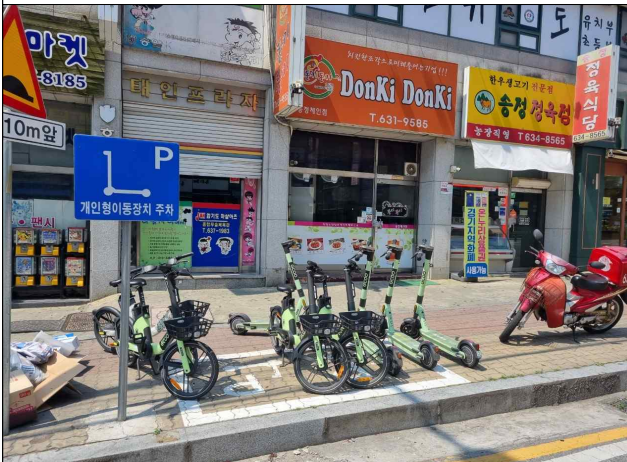
이천시 설봉공원

○ 김재현 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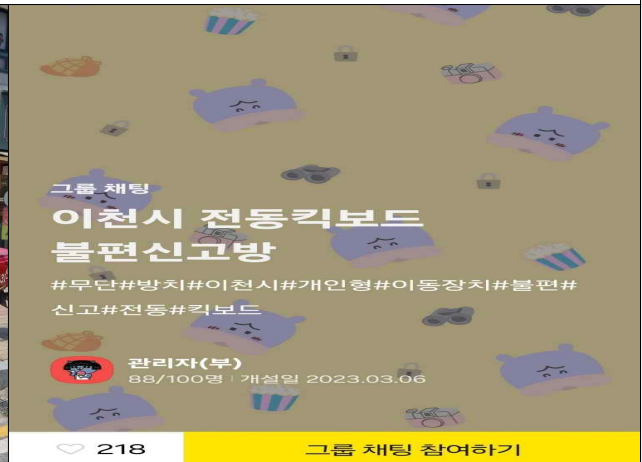
- 이번 호주 연수 중, 특히 도심쪽에서는 도로 주변 어디든지 쉽게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이동의 편리성 및 교통체증을 피해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다만 우리시의 모습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에 헬멧이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 전동킥보드는 완충 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시, 부상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사망자 수는 2018년 4명에서 26명, 부상자는 2018년 238명에서 2022년 2,68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헬멧은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천시민이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스윙, 디어, 지쿠 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총 700여대지만 헬멧이 장착되어 있거나 구비된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멧 착용을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고 단속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호주의 경우처럼 개인형이동장치에 헬멧이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헬멧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또한 호주에서는 2인 탑승, 고속 및 위험 주행, 불법주차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장착한 킥보드가 출시되어 시범 운행 중이다. 위험주행 감지 시스템으로 부적절한 주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들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하거나 이용자에게 패널티 등을 부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반드시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관내 전용 주차존이 45개소가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천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 운영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이천시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으로서 근거 조례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호주 헬멧 일체형 개인형이동장치



이천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존



이천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

-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록스에 위치한 더록스마켓을 방문했다. 이곳은 호주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예전 범죄자들이 살던 마을이지만 그 시절의 건물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 마켓의 초입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다. 한 부스를 차지한 버스킹 공연도 하나의 폴리마켓 구성원으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양한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도시여서 다문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튀르키예 음식인 피즐레메부터 스페인 요리인 빠예야 등 다양한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폴리마켓 운영에 있어 어떠한 편견이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돋보였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호주 특유의 요소들이다.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을 그림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스이다. 시드니 여행 중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상품들이겠지만,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 전망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구매자들에게 분명 더 뜻깊을 것이다.
- 폴리마켓은 호주만의 문화가 아닌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더록스 폴리마켓이 이천시와 비교했을 때 하나의 관광지가 된 요소들이 있었다. 첫째, 고정적인 운영이다. 더록스 폴리마켓을 포함한 호주의 모든 폴리마켓은 매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랜드마크가 보이는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상품 판매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더록스마켓 초입에서 보았던 버스킹 부스처럼 말이다.
- 호주의 폴리마켓이 현지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점에 있다. 반면, 이천의 폴리마켓은 중고물품 판매, 사회적기업 물품 판매 등 특정 ‘테마’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선택지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고정적인 운영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것 역시 아쉬운 점이다. 잠깐의 호응을 위한 이벤트성이 아닌 정기적인 소통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 더록스마켓이 시드니의 중심부인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와 같은 위치적 이점을 가진 곳에서 로컬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천시의 폴리마켓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천의 창전동 문화의 거리나

설봉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예술부터 다양한 물품까지 제한 없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감성을 접목한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 또는 공연 등을 선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천 시민들에게는 지역 제품을 애용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천 창전동 문화의거리



설봉공원 잔디발광장

○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

- 뉴질랜드의 아그로돔 농장은 1차 산업인 축산업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1968년 초대사장이 양털 깎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양털깎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고 1971년에 농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쇼를 시작했다.
- 양 사육 두수는 약 1,100여 마리로 140ha의 면적에 비해 적은데 사육으로 얻는 수입보다는 관광 수입이 80%를 차지하기에 농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양쇼와 양털 깎기 시연, 트랙터를 이용한 농장 투어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구성이었다.
-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동물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분명 특별한 경험이다. 동물 체험과 관광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아그로돔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천시 농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현재 이천시는 경기도 내 양돈 업체 수 1위일 정도로 돼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많다. 이천시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별 농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특색있는 동물 사육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 기타 제안

- 우리나라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조형물에 가까울 정도로 크고 긴 모양이다. 이와 반대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에 적당한 크기였으며,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 태양광 가로등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란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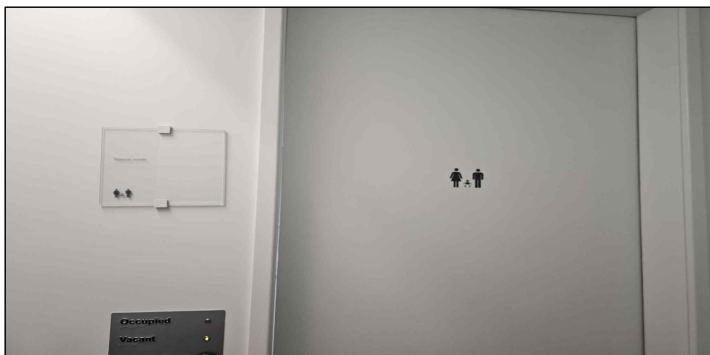
- 이천시도 새로 조성하는 공원, 산책로 등에 친환경적이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 태양광 가로등

■ 기타 제안

-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하거나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형태이다.
- 호주의 한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눈에 띄는 시설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와 동행하는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었다. 입구에는 부모와 아이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 아빠가 여자아이와 동행하거나 엄마가 남자아이와 동행할 수 있도록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 이제 우리사회는 양육자가 엄마·아빠 구분 없이 부부가 함께 돌봄을 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천시의 대표적 장소인 설봉공원이나 아트홀 공연장에 아이와 함께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화장실이 설치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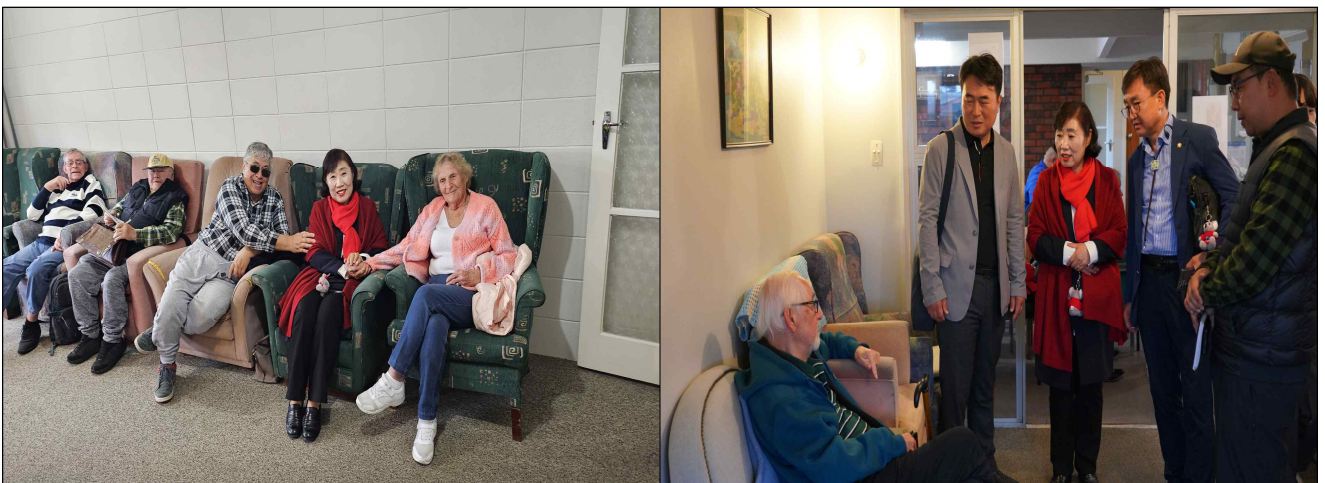


호주 아이동행 화장실

○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

- 뉴질랜드의 우수 복지사례를 통해 이천시 복지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간보호 노인복지시설인 'Daybreak Senior Daycare'를 방문했다.
- 이 시설은 뉴질랜드 로토루아 지역 내 유일한 노인복지시설로 전임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야만 입소 가능하고 매일 전용 차량으로 이용자를 직접 픽업하여 시간 계획표대로 일과가 운영되고 있었다.
- 입소한 어르신 대부분이 초기 치매 증상을 갖고 있어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다.
- 이제는 국민 건강이 곧 국가 경쟁력,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인 시대이다.
- 이천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년 5월 말 기준 16.3%로 고령사회이며 앞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지자체의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으며 결국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관내 치매어르신은 5월 말 기준 총 1,727명이며, 등록대상자에게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치료비지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을 통해 치매의 조기 발견·관리에 힘쓰고 있다.
- 치매어르신 실종 접수는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신변상의 위험성, 수색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낭비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2022년부터 손목형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사업을 진행해왔고 현재 주민자치사업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장호원읍의 경우, 남부권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어르신은 1,540명으로 장호원인구 14,336명 중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장호원읍은 관내 치매어르신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 중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 부착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손목형 배회감지기에는 GPS 위치 추적 단말기가 부착되어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미연에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소재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처럼 이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2022년 12월과 올해 6월에 대표 발의한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시설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이천시민, 경쟁력 있는 이천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천시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질랜드 Daybreak Senior Daycare

○ 김재국 의원

-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 모두 정책적인 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몇십 년을 넘어서 행정을 펼친다는 점에서 크게 감명받았다. 특히 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선진복지 사례 및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이천시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접목 가능한 정책을 보완하여 우리 이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출장에 임하였다.
- 공식 방문기관인 ‘St Anthony’s Family Care’에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제도와 운영에 대한 선진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
- 먼저 우리나라와 차별화된 점은 장애 아동을 비장애 아동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고 야외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편견 없는 교육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었다.
-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여 장애가 있는 친구에 대한 낯센과 두려움이 줄어들어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물론 호주에도 특수학교가 있어 중증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부모들의 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자녀가 장애학생과 같이 수업한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 우리시는 매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통합을 이루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시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병행하여 이른 시기에 장애 아동이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면 비장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과 정서적 발달을 높일 수 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장애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호주는 NDIS라는 장애 보험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가 심한 아동을 위해 특수장애 교사가 1:1 돌봄케어를 해주고 있다.

- 호주에는 긴급한 경우 3일까지는 밤에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365쉼터’를 통해 장애아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야간 일시 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마장면에 한 개소의 쉼터만 운영하다 보니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입소 신청이 몰릴 경우 쉼터 이용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호주는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24시간 돌보미가 2명씩 집으로 파견을 나간다. 거동이 불편하여 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수요자 편의를 맞춰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제도를 우리 시에 도입한다면 장애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1개 운영시설을 최소한 3개 권역별로 확대한다면 수요대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불균형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 호주는 ‘모든 사람들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주제로 장애 활동 주간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 아동이 자라면서 독립된 생활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 우리 이천시도 장애를 넘어 동일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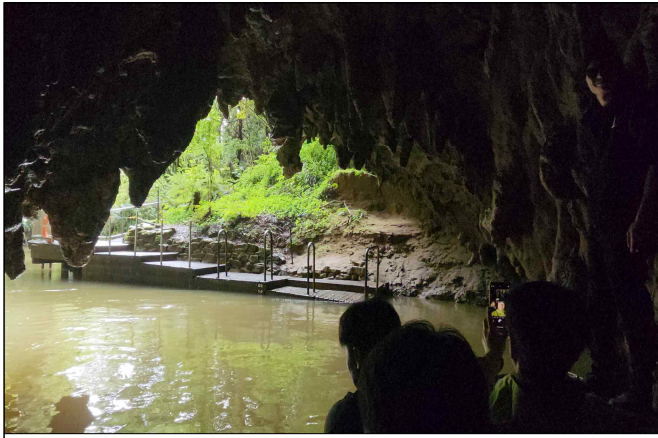
이천시 장애인 문화·예술제(23.11.22.)



이천시 마장면 '장애인 365쉼터'

○ 서학원 의원

- 뉴질랜드 북섬의 글로우웜 서식지인 석회암 동굴을 대표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서 이천시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동굴 내부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으로 인한 조명 빛과 소음 등이 곤충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사진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 녹지환경이 잘 보존된 이천시에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자연문화유산이 많다. 이천은 도자도시로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천시민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 이천시는 일본의 세토시, 중국의 징더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왕래를 통해 도자산업과 도자도시로서의 면모를 발전시켜 왔다. 징더전시는 시가지의 시설물과 구조물은 물론 전통시장에는 도자기가 넘쳐난다. 온 마을이 도자산업으로 꽉 채워져 있다고 느낄 정도다. 일본 세토시나 독일의 마이센 또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도자마을의 품격이 잘 녹아있다. 우리시도 한동안 이런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도자산업 육성이 진행되었지만, 어느 순간 안타깝게도 전통은 사라지고 애매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이천이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은 ‘도자’라는 역사성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천은 ‘도자’라는 고리로 전통과 미래를 엮어 이천 문화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시가지 건물마다 전통 처마를 얹고 구석구석에 도자 상징물이 넘쳐나며 간판이며 문패며 음식점마다 이천 도자기로 꽉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또한 이천시에는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고 몽골 침략에 처절하게 저항했던 고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태조 왕건이 건넌 이섭대천, 서희선생의 외교담판, 고려청자, 신돈 정개산의 공민왕 피난성 등을 관광 콘텐츠화할 것을 제안한다.
- 이천시 문화자원들을 관광 콘텐츠로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대표적인 자연경관이 부족한 이천시의 훌륭한 문화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토모 석회암 동굴



이천시 사기막골 도예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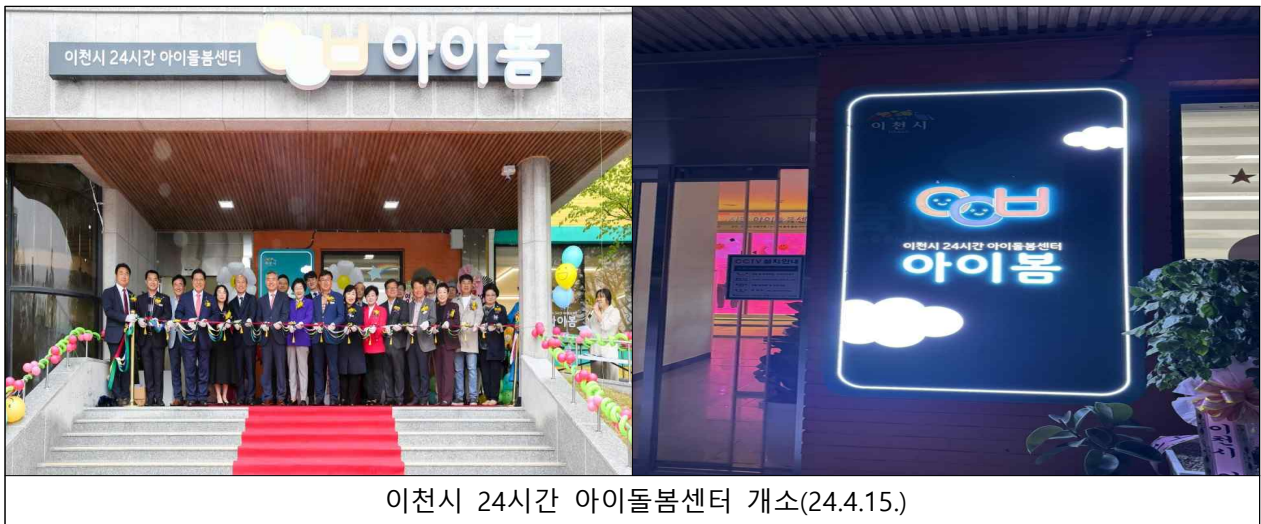
이천시 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

○ 박준하 의원

- 공무국외연수로 복지 선진지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이천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시찰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다.
- 그곳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거버넌스 복지시스템’이었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누구라도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단체가 이끌어 가는 모습이었다.
- 우리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아가는데 이번 시찰을 통해 알게 된 점들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제안을 할 것이다.
- 이번 연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호주 ‘St Anthony’s Family Care’이다. 이곳은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점은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분리되어 보육교사들과 집처럼 꾸며진 곳에서 단기 숙박을 하면서 지내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부모님에게 여러모로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각의 서비스는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제공 및 정산되고 있었는데 우리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비용이 책정되고 있었고, 정부 보조는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었다. 대략 연봉 1억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이하로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으며, 연봉 6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거의 90%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육아 및 돌봄에 부담을 적게 느낀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 교육센터 시찰 중 가이드로부터 들은 설명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장애 아동이라고 해서 비장애 아이들과 교육과정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특히, 이 시설에 대해 인근 동네 사람들이 불편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 “우리 이천시는 수도권 중에서 장애인 가족 비율이 높은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비장애 아동보다 더 많은 사회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시 장애아 돌봄지원 예산규모부터 확인해 봐야 하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돌봄 사업의 단가도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비교·검토해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사업과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도비가 부족하다면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재원은 있는지 검토하고, 이천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 장애가 심한 아동에 대한 양육은 비장애 아동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공감하고 이해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라북도 예산에 반영된 아이 돌보미 기본급여는 2024년 기준 시간당 1만 110원인 반면, 장애아 돌보미의 기본급여는 최저 시급인 9,8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전주일보 2023.12.13)
- 우리 이천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장애아동 돌봄센터도 조성하고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민관학산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임진모 의원

- 호주 바랑가루 지역은 쇠퇴한 화물 하역장을 친환경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 시드니 랜드마크로 부상한 바랑가루 지역 시찰을 통해 노후화된 이천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골목문화 창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 대다수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 지역은 대부분 골목길로 이루어진 구도심 지역이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도심재생 사업에서 도시의 싹틔줄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 재생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골목길 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작지만 실속 있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지역주민이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에 알맞은 테마를 정해 추진한다면 지역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 한 예로, 이천시 창전동이나 중리동 등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도심 골목을 날씨가 좋은 계절 저녁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호주의 노천카페 처럼 야외 펍(Pub)을 운영할 수 있다. 이천 지역 특산물인 이천한우 및 한돈, 쌀맥주, 쌀아이스크림 등을 팔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골목 축제로 만들 수 있다.
- 주변 주민들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 조명 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이천시 야간명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시설개선 위주의 중앙로 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르게 문화적, 콘텐츠적 측면의 도시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골목길 재생사업의 효과는 결국 원도심 전체로 확산되어 이천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이천시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 기타 제안

-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해외연수였다. 호주, 뉴질랜드 모두 영국연방국가로 영국의 제도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정책이 큰 깨달음을 주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병에 대한 예방보다는 병이 걸렸을 때 치료 위주의 정책이라면 이 두 나라는 모두 예방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의 가격을 올리고, 법으로 흡연 가능 연령을 상향하고 있었다. 또한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여 과잉 진료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켜 나가고 있었다. 주치의는 처방약에 의존한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개선을 통한 치료를 우선시하여 환자의 자가 면역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 호주의 아동장애인시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을 한다는 점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학창시절을 보내기에 장애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운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었다.
- 뉴질랜드 역시 장애인에 대한 무한 돌봄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 성인이 되어 취업하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정책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